

AI 2단계 사업 ‘글로벌 AX실증밸리’ 정부 지원 절실

이 대통령, 후보시절 AI국가 시범도시 조성 약속…GPU수용능력 확대 고성능 GPU 등 인프라 전국 단위 분산 투자 어려워 광주 투자 우선될 것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정책과 맞물려 광주 AI집적단지의 특징과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분야 투자촉진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에 1조 2000억원을 편성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광주시는 AI 2단계 사업인 AX실증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광주시 AI 1단계와 2단계를 잇는 브릿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 될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광주시가 선점한 인공지능 실증 밸리 조성(AI 2단계)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지연돼 광주 ‘인공지능 대표 도시’ 구축 사업은 멈췄다.

광주시는 그동안 AI 1단계 사업으로 광주시 북구 첨단 3지구에 ‘AI집적단지’ (4만7246㎡)를 조성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69억원(국비 3045억원, 지방 850억원, 민간 674억원)을 투입했다. AI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와 ‘대형 드라잉시뮬레이터’ 등을 구축했다.

광주시는 AI 2단계 사업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AX실증밸리(6000억원)를 조성해 AI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AX(AI Transformation)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산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AI개발과 인프라 확보에 집중했던 1단계를 넘어서 실제 업무와 산업의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2단계 전이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AX실증밸리를 완결하고 2030년 조성이 목표인 국가AI컴퓨팅센터를 유치하는 등 AI모델시티를 조성해 AI중심도시로 도약

한다는 비전을 마련했다.

이 비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10만장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해 초거대 국가 AI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관건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광주시의 구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 주도 AI산업은 광주가 우선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광주 집중유세에서 광주를 AI국가 시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광주에 현재 GPU 수용능력이 2000장 이라고 하는데 수용 능력을 더 늘리겠다”고 말하면서 GPU 5만장 구매 공약 중 많은 부분을 광주에 투입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에는 AI 집적단지와 국가컴퓨팅센터 구축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을 민간 협력을 통한 과감한 투자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광주에는 유일하게 국가주도 시설이 들어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투자보다는 국가주도 AI사업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 정부 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100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의 시급성이다 지난 정권에서 AI 정책을 주도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업계보다 학계 의견 위주로 목소리를 내면서 현실감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해 민간협력을 통한 투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다.

불투명한 수익성 등을 이유로 좌초한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 하다는 점도 이이다.

새 정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한 곳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크고 작은 데이터센터 여러 곳을 AI 프로젝트 기반으로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뒤 사업 추진을 민간 컨소시엄에 맡기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정부는 뒤에서 투자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AI 1단계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새정부의 공약에 따라 기업들과 광주 투자를 위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고성능 GPU 등의 인프라를 전국 단위 분산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확보하기 어렵고, AI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한계가 있어 결국 광주 투자가 가장 우선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전 국토 AI 인프라 구축의 계획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구축되는 곳은 광주가 될 수 밖에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추가공격 경고 트럼프…이란, 공격·협상 갈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단 하에 미군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하면서 이란 핵문제와 그에 연결된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그것을 넘어선 중동 정세 등이 일제히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공습은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었다. 이란의 주요 핵능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substantial)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진행할지 말지(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함께 이란에 더 시간을 줘도 원하는 협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이스라엘의 거듭된 지원 요청 속에 조기에 결단을 내린 것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이란 공격을 결정한 것은 이란 공격을 통해 이란의 핵 개발을 늦추지 않으면 자신의 임기 초반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는 위기감,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공감대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으로서도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등으로 대미(對美) 반격에 나설지, 대미 협상에 나설지 사이에서 결단의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

미국, 이란 공격 산업계 초비상

▶1면에서 계속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석화산업을 넘어 지역 수출기업에도 연쇄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량은 하루 평균 2000만 배럴로,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내 선사들을 상선을 우회해야 해상 운임 인상과 운송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차단 시 운임은 최대 3배, 선박 운송일은 1~2주 지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은 자동차·가전·금형 등 부피가 큰 해상 수출 품목이 많다.

또 해협 봉쇄가 글로벌 공급망 위축을 불러와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 경제계는 정부에 유가 안정 대책 마련과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양림동 오웬기념각 등 전국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협의회 출범

광주 남구 등 8개 지자체 참여 창립총회 갖고 협력사항 논의

광주 남구 양림동은 근대문화유산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이다.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광주에서 가장 먼저 정착한 곳으로 붉은 벽돌의 선교사 사택, 오웬 기념관 등 근대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다.

양림동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근대학교, 병원 등을 설립해 교육과 인술을 베풀었다. 오늘날 광주가 있기까지 근대 초기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 있는 개신교 선교기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

광주 남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자체는 지난 20일 양림동 오웬기념각에서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회에는 광주 남구 외에도 대구 중구, 전남 목포시, 순천시, 전북 전주시, 김제시, 충남 공주시, 충북 청주시 등 모두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창립총회를 갖고, 제1차 협회 협의회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각 지역 선교기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끝내는 한편 선교기지 유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국제 학술대회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남구는 오웬기념관을 비롯해 우일선 선교사 사택, 수피아여학교 건물 등 7곳의 건축학적,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은 바 있다. 광주의 선교는 유진벨, 오웬, 우일선 선교사가 산파역이나 다름없을 만큼 초창기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남구 관계자는 “차체에 남구 선교기지 유산을 비롯해 전국 8곳 선교기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각 지역을 엮어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독교 선교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확산되고 국제적 지명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 5. 19.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025. 7. 22.까지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6월 23일

주식회사 대정산업

여주시 회양면 소호로 8-1

대표이사 김 정 식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년 6월 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00원 중 금 400,000,000원을 감소하고 자본금 60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써 발행 주식 총수 100,000주 중 40,000주를 1주당 금10,000원에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유상소각하여 총 발행주식 100,000주를 6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고,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보광토건 주식회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14번길 20-3

(1층)

대표이사 이영수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화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